



창악회 창립 63주년 정기발표회

김은영 정세훈 최영미 박준선 임승혁 류창순
Ensemble Eins

2021. 5. 11(화) 오후 7:30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박준선	“Duo II ” for Flute and Piano (2020)	Fl. 손소이, Pf.윤혜성
최영미	“有” for 2 Cellos (2011)	Vc. 주윤아, Vc. 서성은
김은영	“Solitude” for Viola Solo (2020)	Va. 이상민
정세훈	“창밖에...” for Cello Solo (2020)	Vc. 주윤아
류창순	“어떤 흥얼거릴 노래” for Piano Trio (2021) *위촉작품	Pf. 윤혜성, Vn. 강민정, Vc. 서성은
임승혁	“수(手)” for Violin, Viola and Violoncello (2021) *위촉작품	Vn. 강민정, Va. 이상민, Vc. 주윤아



박준선

작곡가 박준선은 역설적인 미학, 음악의 다양성을 고찰한다. 김준홍, 김승림, 박준영, Orm Finnendahl, Michael Reudenbach, Robin Hofmann을 사사했으며, 현대음악의 거장 Brian Ferneyhough의 마지막 제자로 유럽에서의 작곡, 음악학 학업을 마쳤다. 그의 작품들은 베를린필하모닉, 도나우에싱엔, WDR, ARD, Ensemble Modern, IEMA, AKOM, LAB, MMK, Schirn 등 유럽 다양한 곳에서 수상 및 연주되었고, 현재 창악회, ACL, ISCM, 한국음악협회 회원, 국제교류 현대음악협회 INO의 대표로 활발한 작품 활동을, 경희대학교에 출강하며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Duo II ” for Flute and Piano (2020)

주변을 한번 둘러보자, 우리 주변의 익숙한 것들은 누군가에게 온통 생소할 수 있다. 우리 이 두 감정을 느끼는 둘일 뿐이다. 대화란 둘이, 각자 두 억양, 두 말투, 두 소리와 두 높낮이로 서로의 두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다. 온통 둘이다. 서로 다른 "둘"이 존재한다는 것? 그것은 결코 생소하지 않다. 유사함만이 수없이 존재할 뿐, 어차피 완전히 물리적인 "하나", "같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곧, 원리도 색깔도 다른 두 악기, 그 둘의 대화를 들을 뿐이다.



최영미

세상을 자유롭게 바라보며 그 안에 많은 이야기들을 음악으로 풀어보고자 하는 음악인이다. 작곡가이며 재즈 피아니스트로 현대음악, 재즈, 클래식, 무용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탈리아 시에나 음악학교에서 재즈 피아노를 수료하였고 네덜란드 헤이그 왕립음악학교에서 재즈 피아노, 재즈 작곡 그리고 작곡을 학사, 석사 과정을 마쳤다. “프리스틀랜드 국제 현대음악제” 베스트 곡으로 선정되었고 “네덜란드 엔터테인먼트” 피아니스트로 활동하였으며 로테르담 “루크” 오페라때 전임지휘자로 활동 외 최영미 재즈 트리오, 벨기에 룬파르도 탱고 콰텟 등 여러 앙상블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로 활동해 오고 있다.

“有” for 2 Cellos (2011)

나의 창밖으로 늘 보이던 나무 한그루가 어느날 갑자기 눈에 들어왔다. 유독 바람이 많이 불고 추운 유럽의 날씨에 그 나무엔 나뭇가지가 없어보였다.

희미하게 바람에 의해 간신히 펴럭이는 나뭇잎 하나를 발견하곤 그 나뭇잎에 집중하게 되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떨어지지 않고 간신히 붙어있는 나뭇잎에 강한 존재함을 느꼈다. 총 4악장으로 (‘無’, ‘有’, ‘生’, ‘無’) 구성된 이 작품은 오로지 그 나뭇잎의 마지막 떨어지는 장면까지 묘사한 작품이다. “有”는 2악장으로 한 나뭇잎의 강한 존재감을 표현한 악장이다.

2첼로와 현대무용을 위한 곡이나 이번공연에서는 2첼로 구성으로만 연주되어진다.



박준선

작곡가 박준선은 역설적인 미학, 음악의 다양성을 고찰한다. 김준홍, 김승림, 박준영, Orm Finnendahl, Michael Reudenbach, Robin Hofmann을 사사했으며, 현대음악의 거장 Brian Ferneyhough의 마지막 제자로 유럽에서의 작곡, 음악학 학업을 마쳤다. 그의 작품들은 베를린필하모닉, 도나우에싱엔, WDR, ARD, Ensemble Modern, IEMA, AKOM, LAB, MMK, Schirn 등 유럽 다양한 곳에서 수상 및 연주되었고, 현재 창악회, ACL, ISCM, 한국음악협회 회원, 국제교류 현대음악협회 INO의 대표로 활발한 작품 활동을, 경희대학교에 출강하며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Duo II ” for Flute and Piano (2020)

주변을 한번 둘러보자, 우리 주변의 익숙한 것들은 누군가에게 온통 생소할 수 있다. 우리 이 두 감정을 느끼는 둘일 뿐이다. 대화란 둘이, 각자 두 억양, 두 말투, 두 소리와 두 높낮이로 서로의 두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다. 온통 둘이다. 서로 다른 "둘"이 존재한다는 것? 그것은 결코 생소하지 않다. 유사함만이 수없이 존재할 뿐, 어차피 완전히 물리적인 "하나", "같은"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곧, 원리도 색깔도 다른 두 악기, 그 둘의 대화를 들을 뿐이다.



최영미

세상을 자유롭게 바라보며 그 안에 많은 이야기들을 음악으로 풀어보고자 하는 음악인이다. 작곡가이며 재즈 피아니스트로 현대음악, 재즈, 클래식, 무용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탈리아 시에나 음악학교에서 재즈 피아노를 수료하였고 네덜란드 헤이그 왕립음악학교에서 재즈 피아노, 재즈 작곡 그리고 작곡을 학사, 석사 과정을 마쳤다. “프리스틀랜드 국제 현대음악제” 베스트 곡으로 선정되었고 “네덜란드 엔터테인먼트” 피아니스트로 활동하였으며 로테르담 “루크” 오페라때 전임지휘자로 활동 외 최영미 재즈 트리오, 벨기에 룬파르도 탱고 콰텟 등 여러 앙상블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로 활동해 오고 있다.

“有” for 2 Cellos (2011)

나의 창밖으로 늘 보이던 나무 한그루가 어느날 갑자기 눈에 들어왔다. 유독 바람이 많이 불고 추운 유럽의 날씨에 그 나무엔 나뭇가지가 없어보였다.

희미하게 바람에 의해 간신히 펴리는 나뭇잎 하나를 발견하곤 그 나뭇잎에 집중하게 되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떨어지지 않고 간신히 붙어있는 나뭇잎에 강한 존재함을 느꼈다. 총 4악장으로 (‘無’, ‘有’, ‘生’, ‘無’) 구성된 이 작품은 오로지 그 나뭇잎의 마지막 떨어지는 장면까지 묘사한 작품이다. “有”는 2악장으로 한 나뭇잎의 강한 존재감을 표현한 악장이다.

2첼로와 현대무용을 위한 곡이나 이번공연에서는 2첼로 구성으로만 연주되어진다.



류창순

주로 자아를 비롯해 사람을 관찰하며 갖는 내면적 의식(意識)과 심리 등을 바탕으로 음악을 풀어낸다. 초기작들은 다문화적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주로 다루었고 이후로는 자유로운 통찰을 추구하며 변태적인 상상들도 내포하여 소리를 다루지만 그 묘사는 이성(理性)적인 가치관 사이에서 고민하고 절제하여 적당히 얼버무리는 태도를 보인다. 최근에는 심리음향과 지각인지심리 등에 관심을 두고 소리와 음악에 대한 지각적 인식과 마음의 작용을 탐구하고 있다.

“어떤 흥얼거릴 노래” for Piano Trio (2021) *위촉작품

살다 보면 별 이유 없이 어떤 가락이나 노래를 아무렇게나 흥얼거릴 때가 있다. 거기에는 무엇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표현할 의식(意識)이 없다. 또 별 까닭 없이 어떤 특정한 가락이나 노래가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 때도 있다.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계속해서 그 소리가 머릿속을 떠나질 않아서 곤란할 때가 있는데 뇌과학 분야에서는 이런 현상을 마치 귓속에서 벌레가 노래하는 것 같다고 하여 이어웜(earworm)이라고 부른다. 그런 일들이 당시 상황에 대한 나의 심리작용인지 무의식의 발로(發露)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묘한 현상이다. 오랫동안 소리, 형식, 전개 등을 적극적으로 구상하고 계획하며 음악을 풀어냈던 나로서는 그와 같이 통제되지 않는 심리 현상들에 새로운 호기심이 생긴다. 그래서 우연히 내 심상(心相)에 맞힌 작은 심상(心象)을 이후에 살피며 심상(心想)으로 풀어내 보려 하였다.



임승혁

임승혁은 추계예술대학교와 독일 자브뤼켄 음악대학에서 작곡을, 독일 쾰른 음악대학에서 전자음악 작곡을 수학하였으며, 박인호, 테오 브란트뮐러, 미하엘 바일을 사사하였다. 현재 ISCM, ACL-Korea, 창악회, 전자음악협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수(手)” for Violin, Viola and Violoncello (2021) *위촉작품

다양한 음악적 상념이 관성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옮겨지기를 경계하며 조심스레 오선지에 올려놓은 음표는 모두 하나의 수(手) - 재주나 솜씨, 도움이 될 힘이나 행위 - 가 된다.



Ensemble Eins

Ensemble Eins는 작곡가 박명훈 예술감독을 중심으로 총 10인의 연주자로 구성된 현대음악 앙상블이다. 2013년 창단되어 현재까지 다양한 형태의 연주회를 구성하여 현대음악을 연주하고 있다. 창악회, 아시아작곡가연맹, ISCM 등의 초청 및 의뢰연주 뿐 아니라 통영국제음악제, 대구국제음악제, 일신문화재단 등으로 부터 초청을 받아 연주해 오고 있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문화재단으로부터 연주사업 지원을 받고 있다. 'Eins'는 꾸준히 한국 작곡가의 작품 위촉을 하여 신작 초연을 통한 창작 음악 발전에 일조하고 있으며, 전자음악연구소 CREAMA와의 협업 및 국악, 무용 등의 콜라보레이션 등 다양한 방향의 창작 음악 연주를 선보이고 있다.
www.ensembleeins.com

Flute 손소이

- * 서울예술고등학교 졸업
- *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사과정 졸업
- * 독일 베를린 한스아이슬러 국립음대 학사석사 졸업 및 최고연주자과정(Konzertexamen) 최우수 졸업
- * 중앙콩쿨 1위없는 2위(제33회, 35회), 대구TBC콩쿨 1위, 경희대학교콩쿨 1위, 연세대학교콩쿨 1위 없는 2위
- * KNUA Symphony Orchestra와 협연 (지휘, 정치웅)
- * 제72회 조선일보 신인음악회, 제19회 젊은이의 음악제에서 연주
- * Berlin Philharmoniker 객원 역임 (지휘, Sir, Simon Rattle)
- * 한양대 초청특강 강사 역임
- * 현재 :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2수석

Piano 윤혜성

- * 예원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졸업
- *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대 Diplom과정 졸업
- * 독일 쾰른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 (Konzertexamen) 최우수 졸업
- *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립음대 현대음악연주 석사 졸업
- * 금호 영재 선정
- * 독일 Karlsruhe competition for the Performance of Contemporary Music 입상, 독일 Münchner Klavier Podium der Jugend콩쿨 1위, 이탈리아 European Music Competition in Moncalieri콩쿨 1위, 이탈리아 Internazionale Valsesia Musica Premio Monterosa Kawai in Varallo콩쿨 1위, 삼익콩쿨 1위, 한국일보콩쿨 1위, 음연콩쿨 1위
- * 독일 Elbland Philharmonie, Vogtland Philharmonie, Bergische Symphoniker와 협연
- * 독일 Klavier-Festival Ruhr페스티벌 초청 연주
- * 독일 Ensemble Modern주관 앙상블모데르나아카데미(I.E.M.A.) 2014/15
- * 현재 : Ensemble O.N 리더, 예원학교, 서울예고, 계원예중·고 출강

Violin 강민정

- * 서울예술고등학교 졸업
- *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실기우수장학생 졸업
- * 독일 함부르크 국립음대 Diplom과정 졸업
- * 독일 드레스덴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Konzertexamen) 최우수 졸업 및 Prof. Igor Malinovsky의 Assistant 역임
- * 세종음악콩쿨 2위, 포넬클래식 음악콩쿨 대상, 동양일보 음악콩쿨 대상, 충북음협콩쿨 대상
- * 뉴서울필하모닉, 필하모니안즈 서울, 청주시향, 연세심포니와 협연
- * 독일 Hamburg Laeiszhalle와 Hamburg Berenberg-Gossler-Haus 주최 초청 연주 및 Dresden Weber Museum주최 초청 개인독주회
- * 충북도립교향악단, 웨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객원수석 역임
- * 현재 : Cross Chamber Orchestra 단원, 그릿앙상블 리더
에이블아트그룹 강사, 계원예고, 숙명여대 출강
한국플루트학회 이사

Viola 이상민

- *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졸업
- * 독일 함부르크 국립음대 석사 졸업
- * 독일 드레스덴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Konzertexamen) 졸업
- * Dresden Philharmonic Orchestra 단원 역임
- *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수석 역임
- * 현재 : 서초교향악단, 크로스 챔버 오케스트라, 나인뮤직 소사이어티 수석
조이오브 스트링스 단원, 아인하이트 예술감독
안양대학교 겸임교수, 서경대, 계원예고 출강

Cello 서성은

- * 브니엘 예중 졸업, 부산예고 재학 중 도독
- * 독일 뷔르츠부르크 국립음대 디플롬 및 최고연주자과정(Meisterklasse) 만점 졸업
- * 독일 뷔르츠부르거 카머오케스트라 수석, 괴팅엔 심포니오케스트라 단원, 호프심포니오케스트라 단원 및 부속음악학교 강사, 군포프라임필 부수석 역임
- * 브니엘 국제예중, 동아대 강사 역임
- * 현재 : 서울내셔널심포니 수석
조이오브스트링스, 센트챔버소사이어티, 더비전스트링퀼렛 멤버

Cello 주윤아

- * 계원예술고등학교 졸업
- *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수석 졸업
- * 독일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Künstlerische Ausbildung) 졸업
- * 독일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 Advanced Studies 졸업
- * 독일 데트몰트 국립음대 실내악 석사 졸업
- * 수원청소년 음악콩쿨 1위, 서울 중구신문사콩쿨, 협성대콩쿨 2위
- * 계원예고, 한양대 오케스트라 협연 및 상하이음악원 초청 연주
- * 독일 Bamberger Symphoniker 장학생 단원 역임
- * 독일 Detmold Chamber Orchestra 객원 수석 역임
- * 현재 : 과천시립교향악단, 크로스챔버 오케스트라 단원



창악회는
희망하시는 기존회원 및 신입회원 분들로부터
평생회비를 받았습니다.
창악회를 위해 도움을 주신 기부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창악회 평생회원

강은경 고태암 김보미 김수혜
김애리 김지향 박준영 백영은
서경선 양민석 엄대호 이복남
정영빈 정태봉

〈 공연 예고 〉

창악회 기획연주회

2021. 5. 12(수) 오후 7:30
예술의전당 인촌아트홀